

中原郡 猶勒里 石窟実測調査報告書에 대하여

宋 旼 求

中原郡 猶勒里 石窟은 忠州와 聞慶을 連結하는 線과 小白山脈이 가로 질러 이루는 鷄立嶺에 位置한다.

年代는 알 수 없으나 学者들은 900~940年 사이로 推定하고 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正確한 것이 밝혀 질 것으로 생각되나, 問題는 同報告書 p. 123에 있는 平面構成에 대한 解釈이다.

많은 努力이 傾注되어 推定한 尺度가 밝여진 것은 높이 評價하고 싶으나 解釈에 있어서는 未備함을 면치 못한다.

「前室의 柱間 13.00尺, 10.00尺等은 主室과 間隙을 맞춘 것이긴 하나 主室에서 처럼 3이라는 數字와의 연관성은 적어지고 색다른 상황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主室의 종단에서 찾을 수 있는 數值과 횡단에서 찾을 수 있는 數值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라는 대목과 「 $18 : 13 = 1.3846 : 1$ 즉 $\sqrt{2} : 1$ 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주고 있어서…」라는 두 가지의 解釈의 誤謬를 指摘하고 싶다.

原来 古代에는 東西을 莫論하고 그 宇宙觀形成이 수와 같은 関係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古代 Greece에서는 Pythagoras가 그 代表的 思想家이며 東洋은 陰陽五行說, 天文思想, 周易 모든 것이 数와 関連 안된 것이 없다.

數라 할지라도 특히 整数를 발함이며 自乘根을 神聖不可侵의 数로 幾何学의 作図에서는 求하여 지기도 하고 求하였으나 数로서 計算하지 않았으며 不盡根数를 감히 끝까지 計算하는 것도 不可能하다.

따라서 直角三角形을 이루는 三辺의 連比 $3 : 4 : 5$ 에 대하여는 Greece에서는 神聖不可侵의 三角形이라고 하여 그의 神秘로움을 찬양하여 現在 우리들도 建築을 할 때 심

지어 木手까지도 이것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以外의 Pythagoras 定理가 成立되는 많은 整数解에 대하여는 無知한 탓으로 간혹 誤謬를 범하게 된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 古建築의 解釈에 있어서도 그러한 缺陷을 품고 있다는 것을 筆者は 機会있을 때마다 強調하고 있다.

中原郡 石窟의 경우는 13.00尺 10.00尺이라는 數值는 直角三角形이 整数比로서 이루어 지는 5 : 12 : 13의 連比에서 나온 數值이다.

5 : 12 : 13의 連比에 의한 直角三角形은 古代 Mesopotamia에서 많이 利用이 되었다고 数学史에서 指摘이 되고 있으며 이 連比는 太陰歷과 같은 関係가 있다. 또 實際로 Mesopotamia 地方에서는 太陰歷이 發達하였으며 Mahomet 教에서 쓰는 Hegira 歷 또한 그러한데에서 縁由된다.

따라서 中原郡 猶勒里 石窟은 5 : 12 : 13의 直角三角形에서 이루어 지는 數值이며 특히 重要한 것은 5 : 12 : 13이 지닌 太陰歷의 意味이다.

원래 太陰歷에서는 閏年 즉 1年이 13個月이 되는 것이 5年에 2回, 19년에 7回됨으로서 地球의 公転·自轉에서 생긴 時差가 깨끗이 없어진다.

石窟의 平面을 觀察하면 13의 數值를 가진 Span이 BC, CD, DE, 区間에서 本尊佛이 있는 部分만 빠져서 7個 Span이 있다. 이것은 1年이 13個月인 閏年이 7個 있어서 19년을 象徵하는 뜻과 깨끗이 時差가 없어진다는淨土의 뜻도 内包식힌 기가 막힌 平面構成의 意味인 것이다.

다음은 AB, EF区間은 10尺部分 端狭間外에는 Span과 Bay의 數字의 組合은 10과 9 즉 19를 暗示한다. 이것 역시 19년 즉 時差가 없어지는 해의 暗示인 것이며 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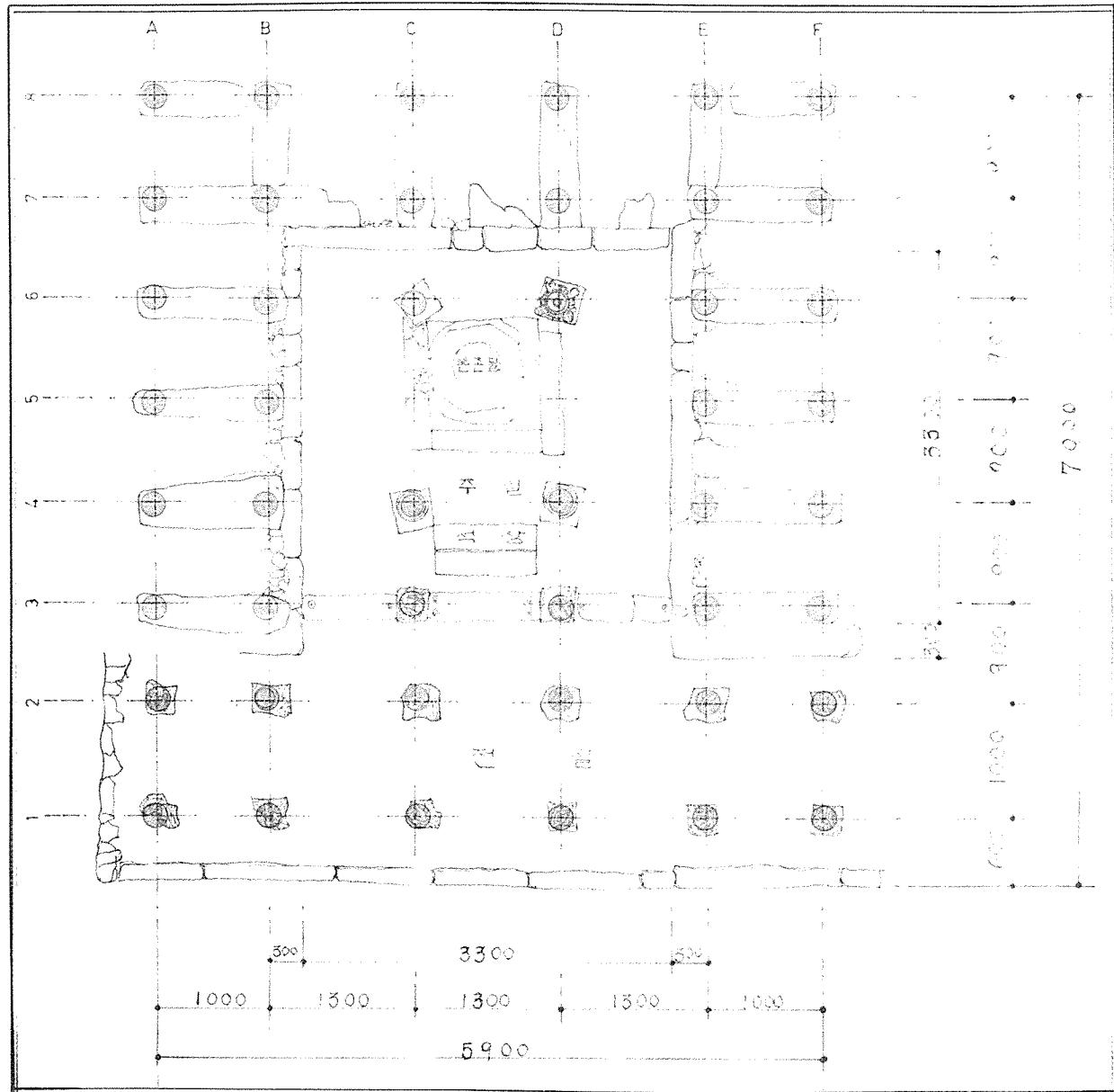
狹間의 10 역시 5年에 2回 있는 閏年の 暗示이고, 따라서 造形的인 解釈에서 本尊佛이 例에 없는 南側에 있다는 것도 暗黙을 眼하는 「달」이라고 意味를 付与하면 그야말로 現代建築에서 말하는 意味論의解釈·Semantics의 解釈이 千余年前 우리 祖上의 思想에 이미 깃들어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한 것이 비단 中原郡 石窟에서만 限한 것은 아니며 우리의 차랑스러운 古建築이 全部가 그러하다.

동시에 더욱 重要한 것은 本尊佛의 位置이다.

石床앞에서 本尊佛 中心까지의 距離는 13.00 尺 \times 1,618 \div 26 尺 黃金分割比의 距離이다.

이것은 멀리 印度의 石窟造營에서의 影響이다.



석실의 평면도

古代 原始宗教에서도 祭物을 받이는 場所의 位置는 극히 正確하게 測定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想像하는 数学의 程度보다 훨씬 正確한 数学을 駆使하였으며 $18 : 13 = 1.3846 : 1$ 이 $\sqrt{2} : 1$ 이라는 터무니 없는 計算은 하지도 않았으며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自乘根은 計算에 의하지 않고 幾何學의作圖에 의하였기 때문에 극히

正確한 것을 古代에서도 作圖하였다.

그러한 아무것이나 $\sqrt{2} : 1$ 의 比에 関連시키려는 思考方式은 日本人学者 米代内氏에서 비롯되어 그의 努力은 큰바가 있으나 그러나 한편 그의 誤謬가 끼친 影響을 생각하면 그대로 看過하기 어려워서 石窟実測調査報告書에 대하여 筆者나름대로의 解釈을 내리는 바다.

(宋改求建築代表)